

이 빠진 KIA 마운드 '약손'은 누구



양현종



스틴슨



힘버



윤석민

임준혁

KIA 윤석민으로 프로야구팬이 뜨겁다. 이번에는 보직논란이다. 시즌 개막이 불과 열흘밖에 남지 않았지만 KIA의 전력은 여전히 안갯속에서 빠져있다. 복잡한 계산이 계속되면서 김기태 감독은 돌아온 에이스의 자리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윤석민의 늦은 합류, 선발과 마무리 모두 불안한 팀 전력 그리고 선발·마무리 경력을 가지고 있는 윤석민의 과거가 복잡하게 얽힌 탓이다.

KIA 마운드는 '돌발 변수' 투성이다. 선발진 구성부터 쉽지 않다. 양현종·힘버·스틴슨을 빼고 두 자리가 남는다. 임준혁이 선발에 가장 근접해 있는 가운데 임기준·문경찬이 눈앞에서 경쟁을 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김진우와 김병현이 대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임준혁이 상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임기준·문경찬은 경험 부족의 어린 선수다. 노련한 김진우와 김병현은 부상으로 완벽하게 시즌 준비를 하지 못했다. 냉정하게 보면 상대에게 위압감을 줄 수 있는 선발진은 아니다. 여기에 힘버도 물음표다. 스프링캠프 연습경기 첫 출전에서 팔꿈치 부상을 당한 힘버는 시범경기 첫 등판에서도 손가락 활과상을 입으며 1.1이닝 밖에 소화하지 못했다. 낯선 한국 적응까지 생각하면 양현종을 빼고는 불확실한 로테이션이다. 몇 년 째 풀지 못한 마무리 고민의 답도 찾지 못했다. 후보로 주목했던 좌완 심동섭의 불안한 투구가 이어지고 있고, 한때 이름이 언급됐던 한승혁은 영구리 통증으로 제대로 테스트를 받지 못했다. 광정철은 완벽한 재출을 위해 속도를 조절하느

선발·불펜·마무리 전천후...보직 '관심' 시범경기 1이닝 2K 전성기 기량 여전 김기태 "더 지켜보겠다"...윤 "준비 최선"

라 1군 합류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김 감독의 시즌 구상은 윤석민이 없는 상황에서 시작됐다. 곳곳이 누수인 마운드에 투수 4관왕 출신이자 전천후 마무리였던 윤석민이 들어오면서 계산이 복잡해졌다. 윤석민의 몸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면서 변수는 늘었다. 주변의 복잡한 표정과 달리 윤석민은 느긋하다. 18일 훈련이 끝난 뒤 윤석민은 보직논란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감독님 결정에 따라 생각한다. 팀을 대표해야 하는 투수이고, 책임감을 가지고 뛰어야 하는 중고참 선수다. 남은 등판을 통해 준비 잘하고 내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지만 마무리로서의 완벽한 변신에 대해서는 "올 시즌이 끝나면 많은 이닝을 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겠다"고 여운을 남겼다. 뒤늦은 팀 합류 속 완벽하게 실전 피칭을 소화하지 못한만큼 윤석민에게 확실하게 자신의 자리를 생각하고 준비를 할 여유는 없었다. 리빌딩을 표명한 KIA에게 올 시즌은 팀의 밑바탕을 다져야 하는 중요한 해다. 시즌은 압박했다. 불확실성은 배제하고 윤석민 카드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관심민 피준혁

스프링 캠프부터 꾸준한 호투 시범경기 평균자책점 1.64 김기태호 모범생...선발 경쟁 선두

거침없는 질주로 '김기태호'의 모범생이 된 KIA 투수 임준혁의 올 시즌에 눈길이 쏠린다. 지난 17일 SK전에 선발 등판한 임준혁은 5이닝 8피안타 2실점으로 마운드를 내려왔다. 경기가 2-7로 끝나면서 패배를 기록했지만 그는 박수 받는 패전투수가 됐다. 야수진의 실수 연발 속에 땅볼이 안타로 둔갑하기도 하는 등 어려움은 있었지만 임준혁은 침착하고 과감했다. "야수진의 실책도 다 경기의 일부다.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내 공을 던져야 한다. 과감하게 승부를 하고 있다. 많은 공을 던지면 던질수록 내가 손해다"고 말한 임준혁은 69개의 공 중 56개를 스트라이크 존에 꽂아넣었다. 당연히 볼넷은 없었고 탈삼진은 5개를 더했다. 무엇보다 임준혁의 꾸준한 피칭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스프링캠프에서부터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임준혁은 이번 시범경기 세 경기에서 11이닝을 소화하며 1.64의 평균자책점을 기록, 그 페이스를 이어가

고 있다. 임준혁을 바꾼 것은 '마음'이다. 임준혁은 "기술적인 부분을 떠나서 심리적인 영향이 큰 것 같다. 감독, 코치님께서 투수는 맞는 직업이라며 자신있게 하라며 믿음을 주신 게 큰 힘이 된다. 볼넷으로 내보내는 것은 승부도 해보지도 않고 포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맞더라도 자신있게, 과감하게 승부하자는 생각이다"고 언급했다. "실패를 두려워 하지 마라. 과감하게 승부하라"는 감독의 주문을 잘 따르면서 '김기태호'의 모범생이 된 것이다. 물론 마음의 변화에 앞서 많은 준비와 노력이 있었다. 앞서 마무리 캠프에서 최고참 자리를 맡았던 임준혁은 "힘들다"는 말을 하면서도 어린 후배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한발 더 움직이면서 맘을 흘렸다. 스프링캠프에서도 그의 노력은 계속됐다. 임준혁은 "준비를 잘한 게 결과로 나오는 것 같다. 몸쪽 승부를 하게 된 것도 나에게 큰 힘이다. 바로 승부에 들어가면서 상대의 타이밍을 뺏고 있다. 시즌에 들어가면 상대의 분석에 따라서 승부 패턴도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지금까지만큼 공격적인 승부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현진 올린 수비진

텍사스와 시범경기 3이닝 3실점...추신수와 맞대결은 무산

류현진(28·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두 번째 시범경기에서도 좋은 투구를 이어갔으나 수비진의 뒷받침을 전혀 받지 못했다. 류현진은 18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서프라이즈의 서프라이즈 스타디움에서 치러진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원정 시범경기 선발 등판에서 3이닝 3피안타 1볼넷 3실점(2자책점)을 기록했다. 46개의 공(스트라이크 30개·볼 16개)을 던진 류현진은 리드오프 레오니스 마틴을 제외하고 모두 우타자로 타순을 꾸린 텍사스를 상대로 삼진은 2개 뽑아냈다. 텍사스의 추신수(33)가 가벼운 발목 통증으로 결장함에 따라 기대했던 류현진과 추신수의 맞대결은 성사되지 않았다. 지난 13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전에서 첫 시범경기 선발 등판해 2이닝 퍼펙트 투구로 부상 우려를 잠재운 류현진은 이날 비록 실점하긴 했으나 외야로 뺏어나가는 잘 맞는 타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위력적인 구위를 뽐냈다. 직구 최고 시속은 91마일(약 146km)을 찍었다. 이날 시범경기 들어 첫 실점한 탓에 류현진의 평균자책점은 3.60으로 나빠졌다. 양팀 합쳐 실책 7개가 쏟아지는 출전이 펼쳐진 가운데 경기는 11-11 무승부로 끝났다. 텍사스는 9-11로 뒤진 9회말 2사 만루에서 대타 호르헤 알파로의 2타점 적시타로 경기를 원점으로 돌렸다. 이어진 2사 1, 2루에서 토머스 필드가 유격수 땅볼에 그치면서 양팀은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경기를 마무리했다. /연합뉴스



관심집중 강정호

美 언론 "스프링캠프 가장 흥미로운 선수"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가 미국 일간 USA투데이가 꼽은 이번 스프링캠프에서 가장 흥미로운 선수로 선정됐다. USA투데이는 17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주와 플로리다주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이번 스프링캠프 중간 결산 기사를 내보냈다. 다르빗슈 유(텍사스 레인저스), 잭 윌러(뉴욕 메츠) 등 이번 스프링캠프의 특징을 '부상 악령'으로 정의한 USA투데이는 최고의 유망주로 작 페더슨(로스앤젤레스 다저스), 가장 흥미로운 선수로는 강정호를 각각 꼽았다. USA투데이는 강정호에 대해 "지난해 한국에서 홈런 40개를 친 타자로, 한국 야수 출신으로는 최초로 빅리그 진입을 노리고 있다"면서 "첫 시범경기에서 홈런을 날렸지만, 지난주까지 그의 시범경기 타율은 0.230대를 기록했다"고 소개했다. 일단 USA투데이는 강정호는 올해 3루수, 2루수, 유격수를 오가는 유틸리티 플레이어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